

# ‘크로우 이탈’ KIA, 임기영으로 선발진 개편한다

내복사근 미세 손상 복귀 단계  
이의리와 내주 동시 등록 유력  
퓨처스 실전 점검 후 1군 콜업  
이범호 “선발 소화 문제 없을 것”



선발진에서 추가 이탈자가 발생한 KIA 타 이거즈가 임시 마운드 개편에 나선다. 팔꿈치 부상을 입은 윌 크로우의 빈자리를

요구리 부상에서 회복 마무리 단계인 임기영이 채울 전망이다.

KIA는 지난 10일 광주-기아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 경기에 앞서 크로우를 1군 엔트리에서 말소하는 대신 이범호를 등록했다. 12일 광주 SSG전 선발 등판 예정이었던 크로우는 지난 8일 대구 삼성전에 앞서 불펜 투구 후 팔꿈치에 불편함을 느꼈다.

이에 삼성 구단 지정 병원인 대구 에스 엠영상의학과외원에서 검진 후 다음날 서울 세종스포츠정형외과의원과 청담리온정형외과의원에서 재차 검진을 실시했으나 우측 팔꿈치 내측 측부 인대 부분 손상을



임기영

진단을 받았다.

KIA로서는 날벼락 같은 상황이다. 이미 이의리가 지난달 11일 좌측 주관절 굴곡근 염좌로 재활군으로 향해 한 달째 자리를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선발만



이의리

두 명을 활용해야 하는 것.

KIA는 이미 대체 선발로 깊은 고민을 안고 있었다. 이의리의 빈자리에 김건국을 두 차례 활용했으나 각각 3.1이닝 3실점, 2.1이닝 4실점으로 부진하면서 황동

하가 6선발로 활용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더블헤더까지 생겼다. 지난 11일 광주 SSG전이 우천 취소되며 12일에 두 경기를 연달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고 1차전 선발로 황동하, 2차전 선발로 김사운을 낙점했다.

천만다행으로 황동하 카드는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황동하는 대체 선발 첫 등판이었던 지난달 27일 잠실 LG전에서 3.2이닝 5실점으로 부진을 겪었으나 지난 3일 광주 한화전에서 5이닝 3실점으로 제 몫을 했다.

이어 12일 SSG와 더블헤더 1차전에서 5이닝 1실점으로 팀 승리에 발판을 냈다. 더블헤더 모두 대체 선발을 가동해 투수진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었지만 투구수를 80개로 최소화해 KIA는 팍도규와 장현식, 최지민, 김도현, 정해영을 등판시키면서 불펜 소모를 줄였다.

이 상황에서 희소식도 들렸다. 부상으로 이탈 중인 이의리와 임기영이 나란히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이의리와 임기영 모두 실전 등판이 임박해 이르면 다음 주 동시 콜업도 가능하다.

이범호 감독은 SSG와 더블헤더 1차전

을 앞두고 “이의리는 어제 캐치볼을 했는데 불편한 느낌이 없다고 한다”며 “팔꿈치에 뻣뻣한 느낌이 있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 단계를 밟아도 될 것 같다. 화요일에 불펜 투구를 한 뒤 문제가 없으면 실전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의리와 함께 대체 선발을 책임질 지원군도 생겼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선발을 책임졌던 임기영이 불펜이 아닌 선발로 복귀를 준비한다. 양현종과 내일, 윤영철에 이의리와 임기영으로 이어지는 선발진이 가동될 전망이다.

이 감독은 “임기영은 선발 쪽으로 가다잡고 준비 시키려고 한다”며 “팔 상태에는 문제가 없고 스프링 캠프에서도 80구에서 100구까지 소화한 선수이기 때문에 선발 로테이션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퓨처스에서 2~3이닝 던지면서 체크할 계획이다”며 “지금은 선발로 쓰는 게 팀에게도 낫고, 임기영과 이의리가 비슷한 타이밍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화요일 불펜 투구에서 방향이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지난 9일(한국 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홀리데이 인 & 스위트 두바이 사이언스 파크에서 열린 2024 KOVO 여자부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에서 아포짓 스파이커 바르바라 자비치를 전체 1순위로 지명했다. 페퍼저축은행 제

## 페퍼저축은행, ‘外人 1순위’ 자비치 영입

194cm 장신·블로킹 장점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아포짓 스파이커 바르바라 자비치(Barbara Dapic·크로아티아)를 품으며 아시아쿼터로 영입한 미들 블로커 위 장(Yu Zhang·중국)과 함께 트윈 타워를 구축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9일(한국 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홀리데이 인 & 스위트 두바이 사이언스 파크에서 열린 2024 KOVO 여자부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에서 바르바라 자비치를 지명했다.

바르바라 자비치는 194cm의 신장으로 높이에 강점이 있는 공격 자원이다. 각 구단의 사전 선호도 조사에서 1개 구단의 1순위 선택을 받으며 일찌감치 지명 후보군으로 분류됐고, 연습경기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바르바라 자비치는 지명에 앞서 “항상 어떻게 더 나은 선수가 될 수 있는지 공부한다. 지도자들의 피드백을 잘 받아들이고 시행할 수 있다”며 “하이볼을 때리는 것이 장점이며 배구 지능도 높다. 경기 흐름을 잘 읽고 블로킹 수비에도 장점이 있

다”고 자신을 어필했다.

지난 1일 2024 KOVO 여자부 아시아쿼터 드래프트에서는 1순위로 위 장을 뽑은 페퍼저축은행은 이번 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도 1순위 지명권을 확보, 바르바라를 지명하며 2명의 장신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며 높이를 보강했다.

장소연 감독은 “원하는 선수를 뽑아 만족한다. 현장에 올 때부터 몇 명의 선수를 정했는데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선수였다”며 “신장과 파워에서 경쟁력 있다. 배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미국에서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을 만큼 생활도 훌륭했다”고 호평했다.

또 “높이에서 밀리면 경기가 어렵다. 아시아쿼터 위 장을 영입하면서 높이가 잘 구축됐는데 외국인 선수까지 이어졌다”며 “그 높이를 잘 살릴 수 있는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페퍼저축은행에 이어 정관장은 반야 부키리치, 한국도로공사는 메릴린 니콜레바, IBK기업은행은 빅토리아 단착, 흥국생명엔 투트쿠 부르주를 선택했다. GS칼텍스는 레티치아 모마 바소코, 현대건설은 지젤 실바와 재계약했다. 포지션은 모두 아포짓 스파이커다. 한규빈 기자

## 광주 체조 홍석류·송채연, 소년체전 사전경기서 金

체조 홍석류(경양초 6)와 송채연(광주 체중 2)이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사전경기에서 금메달을 광주시 선수단에 선사했다.

홍석류는 12일 영암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 사전경기 종목인 기계체조 여초부(여자12세이하부) 마루 종목 결승에서 12.400점을 획득, 2위 박운서(서울 광희초·12.333점)와 3위 신호은(서울 창천초·12.167점)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홍석류는 지난 10일 마루 종목 예선에서 12.150점을 기록, 전체 1위로 결승에 올라, 이날 8명의 출전자 중 가장 높은 마루 연기를 펼치며 광주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송채연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여중부(여자15세이하부) 도마 결승에서 12.050점을 기록, 탁소민(경남 합포중·11.850점)과 하지윤(대구 원화중·11.833점)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 이승윤·오예진, 광주시양궁협회장기 종별대회 남녀부 개인전 우승

이승윤(광주남구청)과 오예진(광주여대)이 제33회 광주시양궁협회장기 종별대회 고등·대학·일반부 통합 남녀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

이승윤은 지난 10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고등·대학·일반부 통합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정다워(남구청)를 상대로 슛오프까지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 6-5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3위는 최민준(남구청)이 차지했다.

전·현직 국가대표들이 대거 출전한 여자부에서는 오예진이 결승에서 김이안(광주은행 텐텐양궁단)을 세트스코어 6-4로 꺾고 1위를 차지했다. 이가영(광주시청)과 최예진(광주은행 텐텐양궁단)은



홍석류



송채연

다.

홍석류와 송채연의 이번 금메달은 광주 체조 종목으로는 3년 만의 전국소년체전 메달 획득이다.

전갑수광주시체육회장은 “사전경기 종목인 체조(기계)에서 2개의 금메달 소식을 들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이번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남중부에서는 김중연, 모성용, 한승제(이상 광주체육중)가 각각 1-3위를 기록했고, 여중부에서는 강수정(광주체육중), 강선우(동명중), 이경민(동명중)이 각각 1-3위에 자리했다.

싱글라운드로 진행된 초등부경기에서는 정하준(성진초)과 이설하(두암초)가 각각 남녀부 1위에 올랐다.

조기태(염주초)와 김혜혁(삼정초)이 남자초등부 2-3위를, 손예은, 고윤우(이상 유촌초)가 여자초등부 2-3위를 차지했다.

오는 25일부터 전남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을 앞두고 마지막 실전 경기

사전경기 성적은 선수들이 그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한 결과이자 열정적으로 지도한 감독, 코치 등의 지도력이 돋보인 결과물이다. 앞으로 남은 소년체전 경기에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력을 끌어 올린 초·중등부 선수들은 마지막 컨디션 조절에 박차를 가해 광주양궁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간다는 각오다.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은 “올해로 33회를 맞은 광주시양궁협회장기 종별대회는 우수 선수를 발굴·육성해 온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회이며,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전 양궁인들이 참가해 우의를 돈독히하는 광주양궁 발전 원동력이었다”며 “대회에 참가한 모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양궁계의 주역이 될 선수임을 기억하고,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광주양궁의 명성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